

모리사키 가즈에의 ‘식민지 조선으로 가는 길’* - ‘두려운’ 타자에서 ‘상쾌한’ 타자로 -

吳美姬**

森崎和江(1927-2022)は戦後韓国を訪問しており、その旅程は『植民地朝鮮への道』であった。その旅は近代日本の植民主義が遺した傷痕と対面し、共鳴して返ってくるこだまに耳を傾ける過程でもあった。敗戦前、森崎は大邱、慶州、金泉で過ごし、大邱と慶州に対する記述は多いが、『金泉』に対する記述は多くない。本稿では、『慶州は母の呼び声』(1984)と『こだまひびく山河の中へ』(1986)に現れた金泉に関する記述を比較分析し、植民地朝鮮を見つめる森崎のもう一つの視線を明確にした。『慶州は母の呼び声』の中で、金泉は森崎の原郷と表象される慶州とは異なり、抵抗と恐怖感を与える不穏な植民地朝鮮として表象されている。ところが、『こだまひびく山河の中へ』では、崔松雪堂や社会事業家の金任順のような、個人として自立した女性と遭遇し、新しいアジアの女性を発見する空間へ変貌する。これを通じて森崎の『朝鮮への道』は恐ろしい他者ではなく、すがすがしい他者との出会いになる。森崎和江の韓国旅行記は朝鮮への原罪意識を越え、現代韓国という新しい他者と向かい合う道程を見せており、その他者の発見は偶然の出会いと発見に満ちている。それは森崎の脱植民の道程でもいえる。その道程は非植民側の植民主義の傷痕からの脱皮だけではなく、植民側の植民主義的思考や態勢の解体をも必要とするのを明らかにしている。

キーワード：森崎和江、旅行記、脱植民主義、金泉、アジア、女性
(모리사키 가즈에, 여행기, 탈식민주의, 김천, 아시아, 여성)

1. 머리말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 1927-2022)는 1927년부터 1944년까지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일본학과 교수, mjungoh@hanmail.net

17년간 식민지 조선에서 거주했던 문학가이다. 대구에서 약 11년, 경주에서 약 5년, 김천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차례로 보냈다. 전후 일본으로 귀환하고 나서는 국내외를 여행하고 많은 여행기를 발표했다. 여행이 풍경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시공간과 인간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타자와 접촉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문학가들의 여행기는 세계와 타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모리사키 가즈에의 전후 한국 여행과 여행기도 ‘식민지 조선으로 가는 길’이며, 식민 2세로서 근대 일본의 식민주의를 추체험하며 식민주의의 상흔에 대면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식민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 선집에 ‘정신사의 여행(精神史の旅)’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을 보아도 ‘여행’이 그녀의 문학적, 사상적 영위에 미친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모리사키의 다큐멘터리, 시, 에세이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여행기’라는 서사 갈래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또한 식민지 조선과 관련해서도 『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慶州は母の呼び声ーわが原郷)』(新潮社, 1984, 이하 『경주』로 약칭)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전후 한국 여행과 관련된 텍스트의 분석이 필요하다. 정호석은 모리사키 가즈에의 여행기에 나타난 탈식민을 향한 여정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이 긴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모리사키의 경우, 여성 여행자의 포스트콜로니얼 여행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였다.¹⁾ 오미정은 모리사키가 1968년 전후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하고 나서 발표한 여행기에 대해서 전후 한국 방문이 과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전후 한국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²⁾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며, 두 번째 한국을 여행하고 나서 발표한 여행기 『메아리 울려 퍼지는 산하 속으로-한국 기행 85년 봄(こだまひびく山河の中へ-韓国紀行八五年春)』(朝日新聞社, 1986, 이하 『메아리』로 약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985년 여행에서 모리사키는 과거 거주한 대구, 경주, 김천을 방문하고 관련

1) 정호석(2021) 「‘오모니’를 만나는 여행-모리사키 가즈에의 여행기 읽기」 『인문논총』 제78권 제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288.

2) 오미정(2022) 「모리사키 가즈에의 전후 한국 인식-1968년 한국 방문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研究』120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77-294.

장소와 인물들을 만난다. 동시에 1985년 변화된 한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럼에도 『메아리』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김천’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탈식민적 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리사키에게 경주라는 공간은 원향, 혹은 고향으로 표상된다. 이와 달리 ‘김천’이라는 공간은 ‘저항하는’ 식민지 조선을 표상한다. 『경주』에서 회상되는 김천과 『메아리』에서 김천에 대한 표상의 차이를 분석하고, 모리사키의 탈식민주의적 여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명확하게 한다. 부친 ‘모리사키 구라지(森崎庫次)’와 비교되는 조선인 여성 교육자 최송설당과 김임순과의 만남은 새로운 ‘어머니’와 ‘아시아의 여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과거 김천에서 느낀 조선인의 ‘저항과 불온함’을 ‘상쾌함’이라는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데, 이 감정의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고찰한다.

2. 식민지의 저항 공간으로서 김천

모리사키 가즈에의 가족은 1943년 5월부터 1944년 2월까지 1년 채 안 되는 기간 김천에 거주했다. 경주에서 모친이 병사하고 부친이 경주중학교(현 경주중고등학교)에서 김천중학교(현 김천고등학교)로 전근해서 가족이 모두 이주하였다. 연보에 따르면, 모리사키는 대구 공립고등여학교에서 김천공립고등여학교로 전학하였다. 김천에서 모리사키는 모친 대신 주부 역할도 하며, 수험생으로 시절을 보냈다. 1944년 2월 모리사키는 대학 입학을 위해, 후쿠오카로 귀국하였으나, 남은 가족들은 김천에서 패전을 맞이하고 일본으로 귀환했다.

1943년에서 1944년은 전쟁이 긴박해진 전시이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개시한 후, 전쟁국면은 경주에서도 점점 그 암운을 드리우고 있지만, 김천에 관한 기술은 ‘전시’라는 말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모리사키의 김천에 대한 인상이 대구나 경주와 달랐던 것은 ‘전시’라는 긴박한 시간이었던 영향이 크다. 전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통치는 극단적인 수탈과 통제, 폭력의 양상을 보였다. ‘금이 솟아나는 샘’이

라는 뜻의 김천(金泉)은 1914년 일본이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생겨난 지명이다. 근대 이전부터 경상·전라·충청이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곳이어서, 조선 5대 시장(평양·개성·강경·김천·대구)의 하나일 정도로 상업이 번창했다. 경부철도 부설로 1905년 김천역이 새로 생기며, 역을 매개로 전형적인 농촌에서 신흥 상업 도시로 바뀌어 갔다.³⁾ 대구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김천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식민도시로 변모해갔다.



〈사진 1〉 김천 남산공원 내 구 김천 신사 흔적을 보여주는 석등과 계단(필자 촬영)

현재 김천시 남산동 일대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다. 현 김천시 남산공원 구내 있는 시립미술관 자리가 구 김천 신사터인데, 주변 낮은 언덕으로 된 남산동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관공서, 학교, 시장이 형성되었고, 현재도 일본인 가옥의 흔적이 남아 있다.⁴⁾ 김천의 일본인 사회는 김천역과 가까우면서도 상업에 편리한 김천장터, 남산동 일대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김천은 전형적 농촌 마을과 도시화된 일본인 공간이 혼재되어 있었다.

3) 김일수(2016) 「일제강점기 김천의 일본인 사회와 식민도시화」『사람』 제56호, 수선사학회, p.239.

4) 2022년 6월에 필자가 모리사키 가즈에와 관련된 김천 지역을 현지 조사하였을 때도, 식민지 시기 가옥이나 도시 형태가 남아 있었다.

『경주』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을 소환하여 총체적으로 기술하는데, 태어난 대구나 깊은 인상을 남긴 경주에 대한 기술이 많고, 김천에 대해서는 간략하다. 모리사키는 마지막 4장에서 김천에 대해 짧고, 어두운 기억을 기술했다. 그 기억은 김천역의 환영식, 김천중학교 설립과 전 교장 투옥에 대한 언급, 김천중학교의 불온한 분위기와 방화 사건이 주를 이룬다. 김천은 대구, 경주와 비교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와 죽음이 팽배한 공간이고, 전쟁이 위기 국면으로 몰리면서 지배자 일본인과 피지배자 조선인의 대립 구도가 표면화되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단절이 두드러지는 시간이다.

김천에 대한 모리사키의 첫인상은 경주와 비교해서 좋지 않았다.

김천역 앞에 중학교 4, 5학년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칠칠치 못한 자세로 서 있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경주 중학생들의 청렬(淸冽)한 표정이 여기에는 없다. (중략) 인솔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해산한다.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께 경례!”하고 말했다. 끝에 있던 한 학생이 치! 하고 혀를 차며 돌맹이를 작게 걷어찼다. 모두 줄줄이 흩어졌다. (『경주』, p.244, 밑줄은 전부 인용자)⁵⁾

모리사키의 김천에 대한 첫인상은 ‘칠칠치 못하고’, ‘청렬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고대 도시같이 안정된 경주에서 지내다가 경부철도와 함께 빠르게 식민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김천의 들떠있는 느낌이 이런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김천에 감도는 절도 없는 무례함, 혀를 차고 돌맹이를 걷어차는 거부와 저항의 소극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 비우호적인 행동을 일본인 모리사키는 식민지배자에 대한 김천의 ‘저항’이 아닌 ‘절도 없는 불량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조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불온함’으로 표현한다. 경주를 고대 일본의 나라와 동일시하며 일본과 조선을 동일화하려는 모리사키에게 김천은 동일화를 거부하는 두렵고 낮은 ‘조선’이라는 타자

5) 인용은 다음 번역본에 따른다. 모리사키 가즈에, 박승주·마쓰이 리에 옮김(2020) 『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한 한 일본인의 수기』 글항아리, pp.1-295.

와 대면하는 공간이었다.

“있잖아, 아빠, ㄱ)돈을 아주 많이 들인 학교네.”

나는 말했다.

“그렇구나. 꽤 오래전에 교회 출자금으로 세운 거라고 들었어. 그러나 학생들은 딱해, 아무 데나 오줌을 똥어. 이 복도에서도 똥었대.”

“왜 그런 거야?”

“전쟁이 나서 기독교는 점차 활동하기 어려워졌어. 내지에서도 그렇고 조선에서도 그렇고. ㄴ)여기 학교 주인과 교장도 조선인 기독교 신자였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형무소 안에 있을 거야. 학생들은 그걸 알고 있어. 어쨌든 학교 건물은 오물로 더러웠어.”

“.....”

나는 하려던 말을 꼭 참았다. 지금 복도는 청결하다. 학생들은 학교 주인과 교장을 탄압한 ㄷ)당국에 대한 저항을 아무 데나 방뇨하는 걸로 표현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많은 것을 자기 가슴 속에만 간직해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중략) ㄹ)나는 아버지가 항일의식이 강한 학교로 쫓겨나고 누군가 뒤에서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끼리 있을 때는 이야기하지 못했다. (『경주』 pp.248-249, 본문 중, ㄱ), ㄴ), ㄷ), ㄹ)의 기호와 밑줄은 인용자)

김천중학교가 기독교 학교라고 기술한 것은 모리사키의 오류로, 『메아리』에서 수정하였다.⁶⁾ 인용문에서 ㄱ)돈을 많이 들인 학교라는 기술은 사실이다. 『松雪六十年史』에 따르면, 설립자인 최송설당(1855-1939)은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보모로 일하였고, 고향인 김천에 낙향 후 인재 육성을 위해 전 재산을 들여 1931년 조선인 학생을 위한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했다고 한다.⁷⁾ 최송설

6) 森崎和江(1986) 『こだまひびく山河の中へ-韓国紀行八五年春』朝日新聞社、p.160.

7) 김천중학교는 현 김천고등학교의 전신이다. 교내에 설립자인 최송설당의 이름을 따라 학교 역사관인 송설역사관이 건립되어 있다. 역사관에는 학교의 역사를 충실하게 수집, 기록, 전시하고 있는데, 1940년대 기록에 모리사키 구라지의 초상,

당은 당시 32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학교를 지었다. 동아일보는 1931년 4월 25일 자에 '적막의 김천은 활기의 김천으로 되고, 초야의 김천은 이상의 김천으로 진전되었다'고 보도했다.⁸⁾ 그도 그럴 것이 1931년 경상북도 지역에 남자 인문계 고등보통학교는 대구고등보통학교, 계성학교 2개교밖에 없는 상황에, 민간인 여성이 조선인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자, 당시부터 저명한 인사들의 주목을 모았다. 개교 4주년 설립자 동상 제막식에 '김천에 고등보통학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니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몽양 여운형이 축전을 보낸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김천고등학교 본관과 과학관은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이 설계했다. 그는 동숭동 구 서울대학교 본관 건립에 참가한 당대 최고의 조선인 건축가라고 한다. 김천이라는 소도시의 조선인 학교 건물을 근대적인 붉은 벽돌로 만들었다는 것은 김천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뒤지지 않고자 지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인용문 ㄴ)에서 학교 주인과 교장이 형무소 안에 있고, 조선인 학생들은 그걸 알고, 학교를 오물로 더럽혔다는 정보를 모리사키는 듣고 있다. 이 기술은 1943년 5월 전후의 긴장된 김천 상황을 반영한다. 1938년 김천고등보통학교는 조선총독부의 학제 개편으로 5년제 사립 김천중학교가 되고, 1943년 3월에 폐교되었다. 교장 정열모가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1943년 4월에 공립 김천중학교가 되고, 5월에 모리사키의 부친이 전근했다.⁹⁾

정열모(1895-1967)는 한글 보존과 연구에 큰 역할을 한 국어학자이다.¹⁰⁾ 1932년 김천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였고, 1942년 조선

졸업자 명단, 사진들이 있다.

8) 松雪六十年史編輯委員會(1991) 『松雪六十年史』松雪同窓會 松雪中・高等学校、p.44.

9) 松雪六十年史編輯委員會(1991) 前掲書、pp.298-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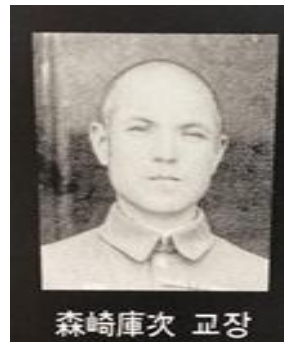
10) 정열모는 1925년 일본 와세다 대학 국어한문과를 졸업하고, 주시경의 조선어강습원 1기생으로 참여하였고,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 1930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위원, 1935년 표준어 사정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해방정국에서는 건준 김천준비위원장도 역임하고, 민족종교인 대중교 인사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후 북한 김임성대학, 사회과학원에서 언어학 교수를 역임했다.

「정열모」, 「디지털김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gimcheon/toc/GC03200887> (검색일: 2023.02.20)

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1943년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1944년에 석방되었다. 정열모의 투옥과 해임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간 학교에 오물을 방기하는 조선인 학생들의 저항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 ㄴ)에서 모리사키는 부친이 항일의식이 강한 학교로 쫓겨나 누군가 뒤에서 노린다는 불안을 서술했다. 식민당국은 조선인이 건립비용을 낸 학교를 공립중학교로 바꾸고, 모리사키의 부친은 경주중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5년간 학교를 운영하였다. 총독부가 경주에서 거둔 성과로 ‘학교 만들기의 명인’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김천중학교로 보낸 것 아니겠냐고 경주중학교 졸업생은 언급한다.¹¹⁾ 모리사키 구라지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 중학교에서 조선인을 일본 교육시스템에 순화시키는 저격수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모리사키 구라지는 경주중학교에서 뛰어난 교육자로서 칭송받았지만, 민족주의자 교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일본인 교장에게 조선인 학생들은 호의를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천역에서 모리사키가 느낀 찰칵치 못하고, 청렬하지 않은 김천중학교 학생들은 일본인 교장에게 예의가 바르게 순종적으로 대할 수 없었다. 결국 김천은 모리사키 가족에게 피식민자의 식민자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인해 불온하며 두려운 타자와 대면하는 공간이었다.



〈사진 2〉 김천고등학교 본관과 최송설당 동상, 모리사키 구라지 (필자 촬영)

11) 森崎和江(1986) 前掲書、p.62.

3. '상쾌한' 아시아 속의 '나'를 찾아

『메아리』는 1985년 3월 한국을 방문하고, 발간한 여행기이다. 『경주』가 과거의 식민지에서의 시간을 추체험하며 식민지 경험을 전체적으로 조감한 텍스트라고 한다면, 『메아리』는 과거를 추체험하면서도 1985년 현대 한국에 대한 견문이 중심을 이룬다. 모리사키는 식민지로부터 해방 40년에 해당하는 이 해에 한국의 '변화'에 주목한다.

전 8장 구성에서 1~4장이 대구 여행, 5~6장이 김천, 7~8장이 김천여고 동창인 김임순과 관련된 서울과 거제도 방문이다. 특히 1968년에 방문하지 않은 김천과 관련된 서술이 상당하여 김천을 40년 만에 방문한 심정과 고뇌가 잘 드러난다. 전쟁 말기를 보낸 김천은 '마음의 가시가 가장 깊은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그녀의 조선 체험에서 가장 어둡고 불안한 시공간이었다.¹²⁾

모리사키는 두 번째 한국을 여행하기 전에 규슈에서 키운 감성이 몸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목소리에 이제는 떨지 않고, 한글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와 만나고 싶었다고 방문의 동기를 밝혔다.¹³⁾

그 빛과 땅과 인간의 냄새를 사랑했다. 사랑해 버렸던 것이었다. 공명해서 나를 잊어 버렸다....

그것은 침략과 다른 차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이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설령 어린 아이의 혼이 아무리 순진무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타인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다.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논리 없이 형성된 혼의 신음에 지나지 않으니까. 생활의, 수면 하의 고독한 싸움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메아리』, pp.6-7)

식민 2세로 성장하고 전후 일본에서 생활한 일본인의 입장에서 식민 지배를 침략이라고 인정하는 모리사키의 고뇌가 읽힌다. 그것

12) 森崎和江(1986) 前掲書, p.10.(본문은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용한다.)

13) 森崎和江(1986) 前掲書, p.7.

은 식민자의 ‘원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타자와 공유할 수 없고,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개인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년도(1984)에 재일본 대구고등여학교 일본동창회가 대구여자중학교를 방문하였는데, 모리사키는 방문하지 못했다. 그녀가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한 1985년은 전후 40년에 해당하고, 아시아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로 갈등한 시국이었다.¹⁴⁾

나는 가지 못했지만, 여자중학교에서는 학생도 선생도 모두 환영해주었다고 한다. 마침 교과서 문제로 일본 국내는 대립하고 있었다. 문부성이 교과서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시아 정책을 침략이라는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도 중국도 기타 아시아 여러 나라도 항의를 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데모가 일어났다.

(『메아리』, p.78, 이하 인용은 필자가 번역)

모리사키는 여행기 전체에서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언급하지 않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 대구여자중학교와 김천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갈등하는 ‘과거사’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패전 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의 과거사를 둘러싼 대립국면에서 전후 성장한 새로운 한국의 세대와 대면한다. 모리사키의 연보에 따르면, 모리사키는 김천여고 출신으로 규슈대학에 유

14)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은 1982년 6월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결과 11월 24일 일본 정부는 근·현대사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새로운 교과서 검정기준을 발표하였다. 한편, 도쿄대학 이에나가 교수가 역사 교과서 3차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역사 교과서 기술이 개선되도록 하여, 1984년에 중학교 교과서가, 1985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침략과 가해 사실에 관련된 기술이 개선되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사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59&sitePage=\(검색일: 2023.02.20\)](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59&sitePage=(검색일: 2023.02.20))

학 중인 채경희를 알게 된다. 1985년 3월 그녀와 대구, 김천, 서울, 거제를 방문한다.¹⁵⁾ 김천에서 부친이 근무한 학교와 가족이 살았던 거주지를 찾아간다. 서울에서는 42년 만에 김천고등여학교 동창들과 재회하여, 동창인 김임순이 거제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애광원을 방문하기도 한다.¹⁶⁾ 김천에 대해서, 『경주』에서는 불온, 공포, 죽음의 표현이 지배적이었다면, 『메아리』에서는 ‘후련하다, 상쾌하다(すがすがしい)’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두 텍스트 사이에 김천에 대한 모리사키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메아리』에서는 흥미로운 두 에피소드가 기술된다. 하나는 김천중학교 설립자 최송설당과 정열모 교장에 대한 일화이다. 또 하나는 동창 김임순과의 재회이다. 먼저, 부친이 근무했던 구 김천중학교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모리사키는 1984년 『경주』 간행 후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본 김천중학교 동창회장 김상규의 편지로 기독교인이 설립했다는 것은 오류라고 알게 된다. 편지를 받고 도쿄에 상경하여 동창회지 『松雪五十年史』 등의 자료를 빌려 ‘최송설당’과 ‘정열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접한다.

모리사키는 김천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녀와 반대로, 8·15 이후 일본에서 태어난 여관 여주인과 와카야마 출신 과자가게 여성과 만난다. 그들은 낯선 고향에 돌아와 적응하는데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국경을 넘어 뿌리뽑힌 자들의 감정에 공명하며, 모리사키는 전쟁 말기 식민지의 저항이 주었던 불온함과 공포, 출구없는 폐쇄 상황을 회상한다.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던 아버지가 나와 같은 또래 조선인 중학생을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리는 그 공포가 그 무렵 내게는 있었다. 지금이 되어서도 나는 그 밤들의 정적은 얼어붙은 채 떨어지지 않는다. (중략) 침략의 무계가 나를 떨게 한다. 괴롭다. 무서운 세월의 동행자들이 다가온다. 도망

15) 森崎和江(2009) 『森崎和江自撰年譜』『森崎和江コレクション 精神史の旅 5 回帰』藤原書店、p.356.

16) 『こだまひびく山河の中へ』에서 김임순은 金仁順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金任順의 오자이다. 이후 발표된 모리사키 저작에서는 金任順으로 수정되어 있다.

칠 곳이 없어진 우리에게 패전이 구원이었다고. (중략) 그래도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떨면서 부모님의 그림자에 말을 걸었다. 드디어,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해준 세월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학교에 다녀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학교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원죄라고도 원항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한글의 마을에서 체온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메아리』, pp.169-170)

모리사키는 김천고등학교에서 부친을 기억하는 이들과 만나서, 과거를 사죄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편지에는 상세하게 돌아가신 부친의 모습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생도들과 어울리려 한 것이 죽음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침범하는 일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구제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전전의, 소수민족을 문제로 삼은 자들 위로 스친다. 문득문득, 부친의 가르침이 스친다. 이제야 부친의 고뇌를 알아차린 듯이. (『메아리』, p.179)

경주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천에서도 인간적으로 조선인 학생과 어울리려 했던 부친의 면면을 듣고, 모리사키는 더 고민하게 된다. 식민지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어학회사건도 최송설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학생들이 그렇게 나쁜 일본인은 아니었다고 부친을 회상하는 것에 안도한다.(『메아리』, p.174) 그러면서도 김천중학교의 설립과 부친이 부임한 경위를 알게 되면서, 모리사키는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 지배자였던 일본인의 위치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과거의 시간에 대면하여 고통과 속죄를 표현한다.

이러한 과거의 고통을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7, 8장에서 주로 서술되는 김임순과의 재회이다. 모리사키는 김천 남산동에 있는 황금동교회(구 황금정교회)를 방문한다. 황금동교회는 모리사키의 여고 동창생인 김임순과 연결되어 있다.



〈사진 3〉 김천 황금동교회와 김천여자고등학교(구 김천고등여자학교)
(필자 촬영)

황금동교회는 김천 지역의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중심 교회였다.¹⁷⁾ 황금동교회는 1939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복역한 송창근 목사가 출옥하여 시무한 교회이다.¹⁸⁾ 그의 장남 송승규가 김천중학교 졸업생으로, 미국회도서관 동양서관에서 근무하며, 『경주』 간행을 알게 되어 모리사키에게 1985년 편지를 보낸 인물이고, 김임순의 남편이다. 김임순(1925-)은 김천고등여자학교 출신으로 이화여대 졸업 후, 1950년 송승규와 결혼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었다. 김임순은 남편의 생사를 모르는 채, 홀로 딸을 키우며 1952년 포로수용소가 있던 거제도에서 전쟁고아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였다.¹⁹⁾ 1989년 막사이사이상 사회지도 부문을 수상한 사회사업가였다.

서울에서 모리사키는 동창생을 통해 송승규가 김임순의 남편이

17) 「황금동교회」, 『디지털김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gimcheon/toc/GC03201230>(검색일: 2023.02.20)

18) 만우 송창근(1898-1951?) 함북 경흥 출생, 목사.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 전신)설립의 기틀을 닦고, 한국전쟁 기간 납북, 사망하였고, 아들 송승규는 미국으로 망명했다.

19) 이 시설은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는 애광영아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광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거제도애광원」 <https://akw.or.kr/애광원-소개/연혁/> (검색일: 2023.02.20)

고, 현재 미국에 있지만, 그들이 식민 지배와 전쟁과 분단으로 이산 가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인의 가슴에 남아 있는 무거운 문제들이 반도의 북쪽과 남쪽과 미국으로 흩어져 한 점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것을 느끼고 나는 사진에서 눈을 돌린다. (『메아리』, p.244)

『메아리』에는 홀몸으로 딸을 키우고 시어머니와 장애인 고아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김임순에 대한 깊은 여성으로서 깊은 공감의 드러난다. 거제도도 김임순을 방문하고, 이후 모리사키와 김임순의 교류는 계속된다.²⁰⁾ 김임순과의 조우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 분단과 이산이 어떤 상흔을 낳았는지를 모리사키에게 인지시켰다. 나아가 여성의 결혼과 출산, 육아, 일이라는 경험에 공감하면서, 현대 한국 여성이 개인으로서 어떻게 자립했는지를 알게 된다.

『메아리』라는 여행기에서 모리사키는 여행지에서 다양한 세대와 직업의 현대 한국의 여성들과 만난다. 구미공단의 여성 노동자, 여자대학생, 도시 중산층 주부, 여성 사업가, 동창생들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한국 여성들에 대한 시선은 1968년 첫 한국 방문 때와 달라져 있다. 모리사키는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 특히 김천과 관련하여 치마저고리를 입은 ‘어머니’와 같은 고정된 ‘조선인 여성’의 표상을 상대화하고, 송설당과 김임순과 같은 ‘한국 여성’들을 새로운 타자로서 발견한다. 한 명은 국권을 잃은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으로 후세를 양성하고, 또 한 명은 가족을 넘어 고아와 장애인을 돌보는 새로운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민족, 성이 규정하는 큰 역사에 휘둘리면서도 남성에 의존하지 않

20) 1998년 12월 모리사키가 거주하는 무나카타(宗像)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에 김임순을 초청하여 대담하고, 무나카타시 시민들이 애광원과의 교류지원모임인 ‘애행회(愛行会)’를 만들어 활동을 벌인다. 모리사키는 1998년 10월 『사랑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21세기에 보내는 메시지(愛することは待つこと-21世紀へ送るメッセージ)』의 인세를 한국 애광원에 기부하였다. 2000년 TNC텔레비전 프로그램 『메아리 울려 퍼지는 산하 속으로』에 채경희와 함께 출연하여, 서울, 거제도 애광원 등 관련이 깊은 지역을 돌았다. (森崎和江(2009) 前掲書, pp.345-363)

는, 독립적인 한 명의 여성으로서 삶을 살았다. 모리사키는 한국의 여성들이 안고 있는 ‘공동체’ 개념이 일본 여성들보다 넓다고 언급한다.(『메아리』, p.222)

이와 관련해서 정호석은 치마저고리를 보기 어려워진 1985년의 거리 풍경을 언급한 모리사키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치마저고리의 심상 변주를 통해 한인 여성이라는 타자를 식민주의적 상상력 속에 고정시키는 페티시즘적 동일화의 자장은 물론 다른 작품 속 치마저고리에 얽힌 기억마저도 상대화해 나간다고 지적했다.²¹⁾ 이는 1968년 첫 방문 이후 17년이 지난 한국에서, 과거의 식민주의적 표상을 반복하지 않고, 변화된 새로운 한국 여성을 발견하려는 몸짓이고, 이는 식민지 경험을 넘어 현대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뱃멀미와 닦은 감각이 올라온다.

짧은 여행이지만 한국을 걸으면, 대지도 강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여성이 밟고 건너는 세계는, 나의 시계가 포착하는 한 근대에서 현대에 걸쳐, 성숙한 여성도 젊은 여성도, 흔들리는 땅과 물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달콤한 피를 튀기며 살아왔다. 우리 일본인들이 부동의 대지라고 불려온 일상생활의 기반을 한국의 여성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공으로 파악했다. 모든 어머니, 모든 딸이 늘 개(個)이고자 했다. 김천중학교를 창립한 옛날 최송설당 여사로부터 내 오랜 벗들의 딸들까지, 대가족제도 안에 있든 그 붕괴과정에 든 개개인이 진정 시원시원하게 막힘이 없다. 생활양식은 꿈쩍달짝하지 못하는 남성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혼자라고 하는 듯이 살아왔다. (『메아리』, p.278)

1985년 김천 방문에서 모리사키는 전쟁 말 제국주의 칼날 위에서 악전고투한 모리사키 구라지의 위태위태함에 대비되는, 최송설당과 김임순이라는 여성 교육자를 발견한다.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은 근대 가족제도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한 자립적 여성들

21) 정호석(2021) 앞의 논문, p.305.

이다.

나아가 이 새로운 여성들은 모리사키에게 『경주』에서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어머니(オモニ)’와 다른 ‘아시아의 여성’으로서 확장된다. 여행기의 후기에서 모리사키는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일 년 전 나는 한국으로 짧은 여행을 했다. 조금은 상쾌한 ‘아시아 속의 나’를 찾아가는 극히 사적인 여행이었다. 많은 분을 뵈었다. 마음은 소용돌이치지만, 일찍이 부모와 살았던 마을을 걸었다. 그곳(필자 주: 김천)은 패전되기 이 년 전까지 민족 교육이 이루어졌던 마을이다. 지금도 여전히 찌릿찌릿 마음은 아프지만, 나를 방어해줄 존재가 아무도 없는 마을이다.

사십 년을 지나 처음으로 오랜 벗들과 만났다. 같은 교실에서 책상을 맞대었던 당시 친구들의 생각이나 그 후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마음이 떨렸다. 그리운 사람들과 하나로 이어진 무대가 괴롭다. 젊은 사람들과 만나면 안심이 되었다. 서로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성적인 젊은 여성들이 생동감 넘치게 활동하고 있었다. (『메아리』, p.281)

1985년,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 모리사키는 ‘식민지 조선으로 가는 길’을 ‘아시아 속의 나를 찾아가는 길’로 확장한다. 과거로 가는 도정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아프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뭐라고 정의하기 어렵고 불편한 감정들과 상황을 피하지 않는 여정이었다. 한편 새로운 젊은 세대와의 만남은 ‘안심감’을 준다. 상흔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양가적 감정은 식민주의의 기억과 대면하고 성찰하는 탈식민적 수행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이 논문은 모리사키 가즈에가 두 번째 한국 여행 후 발표한 여행기 『메아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모리사키의 두 번째 한국 여행은 식민지 조선으로 가는 여행이자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는 여행

이었다. 『경주』에서 재조일본인 2세로서 식민지 경험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였다면, 『메아리』에서는 식민지 경험을 넘어 한국이라는 타자와 어떻게 대면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행기의 제목에 있는 ‘메아리’라는 상징은 식민 2세로서 모리사키가 어떻게 타자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표현행위의 본질이기도 하다. 메아리는 소리가 반사되면서 여러 소리가 합해져서 들리는 현상이다. 반사하는 물체가 많을수록, 단단할수록 메아리는 많이 울린다. 식민지 조선에 대해 발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식민지 경험’의 기억과 공명하고, ‘현대 한국’과 공명하여, 다시 그녀에게 반사되어 들리는 혼성적 목소리가 된다.

이를 통해 식민 2세 일본인 여성인 모리사키의 여행과 여행기는 식민지 이후 피식민자의 탈식민적 여정과 대면하고, 식민자 자신의 식민주의적 사고체계를 해체해 가는 탈식민적 수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가 ‘김천’에 대한 감정이 ‘공포와 불안’에서 ‘상쾌하고 후련함’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다만 과거의 피식민자들이 종속을 벗어나 주체가 되고, 더 이상 불온한 타자가 아님에 안도하는 구 식민자의 감정 변화를 표현한 여행기가 여전히 아시아에 존재하는 식민주의를 비가시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일수(2016) 「일제강점기 김천의 일본인 사회와 식민도시화」 『사람』 제56호, 수선사 학회, p.239.
- 모리사키 가즈에 지음 · 박승주, 마쓰이 리에 옮김 『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한 한 일본인의 수기』 글항아리, pp.1-295.
- 오미정(2022) 「모리사키 가즈에의 전후 한국 인식-1968년 한국 방문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研究』120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77-294.
- 정호석(2021) 「‘오모니’를 만나는 여행-모리사키 가즈에의 여행기 읽기」 『인문논총』 제78권 제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288, p.305.

松雪六十年史編輯委員会(1991) 『松雪六十年史』松雪同窓会・松雪中・高等学校, p.44, pp.298-300.

森崎和江(1984) 『慶州は母の呼び声』新潮社, pp.181-202.

_____(1986) 『こだまひびく山河の中へ-韓国紀行八五年春』朝日新聞社, pp.5-282.

_____(2008) 『森崎和江コレクション 精神史の旅 1 産土』藤原書店, pp.7-335.

_____(2009) 『森崎和江コレクション 精神史の旅 5 回帰』藤原書店, pp.44-54, p.345-363.

「거제도애광원」 <https://akw.or.kr/애강원-소개/연혁/> (검색일: 2023.02.20)

「일본역사교과서왜곡사건」『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59&sitePage=> (검색일: 2023.02.20)

「정열모」『디지털김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gimcheon/toc/GC03200887> (검색일: 2023.02.20)

「조선어학회사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129> (검색일: 2023.02.20)

「황금동교회」『디지털김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gimcheon/toc/GC03201230> (검색일: 2023.02.20)

〈Abstract〉

The Road to Colonial Korea by Kazue Morisaki
– From Scary to Relief –

Oh, Mi-Jung

Kazue Morisaki (1927–2022) visited South Korea after the war, and the itinerary was published as *The Road to Colonial Korea*. It was the process of confronting the scars left by the modern Japanese colonialism and listening to the echoes that resonated with them. Morisaki spent her time in Daegu, Gyeongju and Gimcheon before the war, and there are many descriptions of Daegu and Gyeongju, but not many about Gimcheon.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descriptions of Gimcheon that appear in *Gyeongju is Mother's Call* (1984) and *Into the Mountains and Rivers with the Sound of Echoes* (1986), and clarifies Morisaki's other points of view when looking at colonial Korea. In *Gyeongju is a mother's call*, Gimcheon is a colony of Korea, which gives uneasy resistance and fear unlike Gyeongju. However, in *Into the Sound of the Mountains and Rivers*, Morisaki encounters Choi Song Seol-dang and a social entrepreneur Kim Im-sun, and discovers an Asian woman who has emerged as an individual through the resistance of colonial Korea, the war, and dispersion. Through this, Morisaki changes his emotional attitude from the disturbing resistance and fear she felt in Gimcheon to a relief.

Kazue Morisaki's travel essay on Korea goes beyond the original sinfulness of Korea and shows the journey to face the new other, modern Korea, and the discovery of the other is full of occasional encounters and discoveries. The same can be said of Morisaki's decolonization process. It makes it clear that the path requires not only the shedding of the colonial scars of the non-colonial side, but also the dismantling of colonialist thinking and attitudes of the colonial side.

Key words : Kazue Morisaki, Travel Essay, Colonialism, Gimcheon, Asia, Woman

투 고 일 : 2023년 03월 24일

심 사 일 : 2023년 04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5월 02일

